

# 강 건너 불구경

: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여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지역, ○○산에 산불 발생,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봄·가을철이 되면 뉴스에 단골처럼 나오는 보도 내용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코, 또 불이 났나 보네...’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한 귀로 흘려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을 본다면 절대로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최근 10년간의 산불을 보면 대체로 봄철인 2월에서 4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올해(2021년)도 2월에만 69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발생에는 자연적 이유도 있지만,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무심코 버리는 담뱃불과 농사의 부산물을 소각하거나 논·밭두렁을 태울 때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불씨(비화)에 의해 불길의 다시 살아나서 번지는 것입니다.



# # 01

그렇다면 1년 중 산불이 봄, 가을에만 집중되어 있고 빨리 번지고 쉽게 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 때문입니다. 강수량이 적은 봄철이라 나무의 수분함량도 떨어지고 더욱이 마른 낙엽은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데다 강풍까지 더하니 쉽게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게다가 '기후변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예전과는 다른 봄철의 평균기온이 높아지고 비도 잘 내리지 않아 이 시기의 숲은 바짝 말라 있어 산불 발생 시기도 당겨지고 작은 불씨에도 규모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3월 5일 내장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 내장사가 어치구니없게도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고, 출동했을 땐 이미 대응전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진압에 조금만 늦었더라면 내장산국립공원까지 불길의 번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속리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산림에 큰 피해를 주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취사와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정하여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와 같은 인화성 물질은 산행 초입에 비치된 인화물품보관함에 꼭 두고 가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숲,  
우리나라 산림에 더는 남의 일인 양 무관심하듯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아름다운 자연,  
살아 숨 쉬는 생태계, 야생동물의 보금자리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지켜주세요.

윤주영



#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 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여 지난날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지 않고 잘난 듯이 뽐낸다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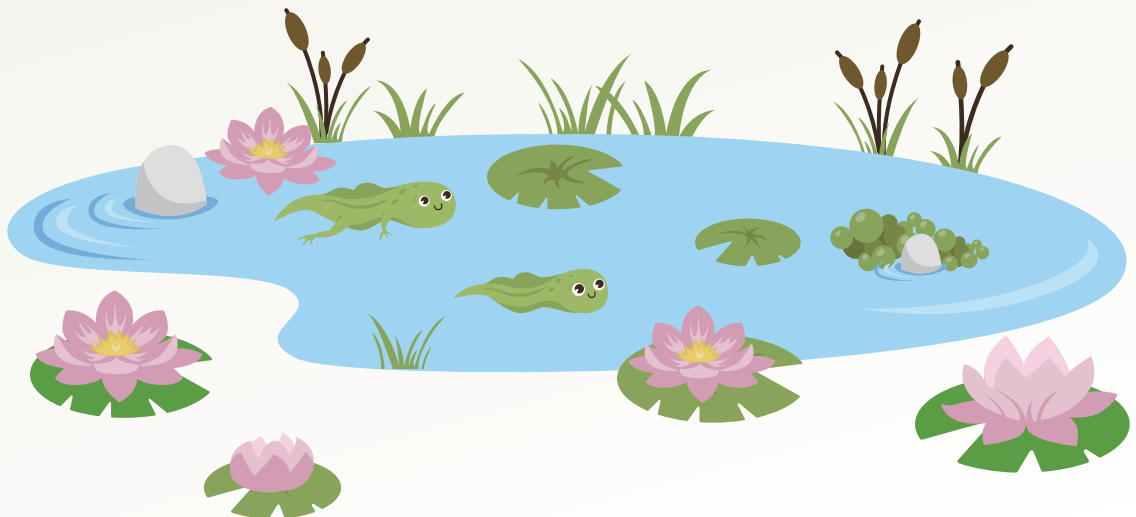
봄의 길목에 들어섰다는 입춘이 지나면 따사로운 햇볕이 대지를 비추고, 더해서 비가 내리면 자연 속에 모든 생물들이 봄을 맞을 채비를 서두릅니다. 봄이 오고 있음을 식물들은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우고 동물들은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동함으로써 알 수 있게 하는데 그중 경칩(3월 5일)이 되면 속리산 계곡에서는 개구리들이 잠에서 깨어나 요란스럽게 울어대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개구리들은 겨울잠에서 깨자마자 왜 그렇게 요란스럽게 울어떨까요?



그 이유는 목청이 좋은 수컷들이 목소리를 높여 자기를 알려 멋진 상대와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구리는 오롯이 수컷만이 울음소리를 낼 수 있는데 목 밑에 울음주머니를 이용해 암컷을 향한 구애의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에 반응한 암컷이 있으면 다른 수컷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다음 얼른 암컷의 등에 올라가 알을 낳을 수 있게 도와주고 알 위에 자신의 씨를 뿌려 수정을 돕습니다.

개구리는 종류에 따라 한 번에 수십에서 수 백 개의 알을 낳는데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 아닌 얇은 물웅덩이에 산란해 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자손을 보호합니다. 짝짓기 시기가 지나 알이 부화해서 올챙이가 되었는데도 주변엔 짝을 찾지 못한 수컷들이 연신 울어댁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어릴 때 모습인 올챙이 생김새를 생각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뽐내기라도 하는 듯 보여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 한다'라는 속담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 # 02

그런데 요즘은 우리 주변에선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식량으로 혹은 당시의 문화적인 이유로 포획·남획되어 개구리가 위기에 처했었다면, 현재는 자연훼손과 기후변화로 삶의 터전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릴 적 생각을 못 하고 으스대는 개골개골 울음소리조차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듣고 있다면 자연과 더불어 살던 인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소중히 하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의 울음소리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윤태현



#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꽃아도 싹이 난다.

: 청명에는 부지깽이와 같은 생명력이 다한 나무를 꽃아도 다시 살아난다는 뜻으로,  
청명에 심으면 무엇이든 잘 자란다는 말

매년 4월 4일이나 5일은 하늘이 맑다는 절기, 청명이 있습니다. 청명에는 날이 풀리고 화창해지기 때문에 농사일이나 고기잡이 같은 활동을 하기에 좋다고 하여 '청명에는 부지깽이를 꽃아도 싹이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부지깽이 같은 죽은 나무도 꽃아놓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뜻으로 무엇을 심던 잘 자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자연을 위해 나무를 심는 날인 식목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식목일은 4월 5일이 아닌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 03

처음 우리나라가 식목일을 지정하던 때인 1949년은 4월 5일이 나무를 심기 좋은 6.5℃의 기온이었습니다. 점차 그 기온이 올라 2010년에 들어서는 식목일 기온이 무려 10.3℃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하며, 이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무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무는 어릴 때 자라기 위해서 광합성을 많이 하는데, 이 광합성을 통해 공기 중 탄소를 흡수합니다. 나무가 다 자라고 난 후에도 어린나무일 때보다 커진 몸집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광합성을 열심히 하고, 어린나무일 때와 마찬가지로 탄소를 흡수합니다. 나무는 어린나무든 다 자란 나무든 탄소를 흡수해서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도 보호해야 합니다.

속리산국립공원에는 오래된 나무와 어린나무가 적절하게 잘 섞여 살고 있습니다. 특히 잣나무, 전나무,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림이 많은 숲에서 상수리나무, 신갈나무와 같은 활엽수림이 많아지는 숲으로 자라고 있는데, 이 나무들은 모두 탄소 흡수량이 높은 나무들입니다. 이렇게 속리산국립공원은 숲을 보호하고 가꾸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속리산국립공원을 포함한 국립공원은 지구의 푸름을 지킬 수 있는 \*보고와 같은 곳입니다. 이 국립공원마저 기후변화로 인해 더는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실천하여 이 재앙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청명과 식목일에는 푸르른 우리의 지구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담아  
나무를 심고 국립공원을 탐방하면 어떨까요?**

지아람

\*보고 : 귀중한 물건을 간직해 두는 창고. 귀중한 것이 많이 나거나 간직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오리 제 물로 날아간다.

: 자기의 정든 곳을 항상 그리워하며 찾아가게 마련이라는 말

청둥오리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는 흔한 겨울 철새 중의 하나입니다.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를 피해 우리나라로 날아오고, 봄에는 먹이가 풍부한 청둥오리의 고향인 러시아로 날아갑니다. 속리산에서는 10월 말 즈음부터 3월까지 속리산 세조길 저수지에서 러시아로 날아갈 준비를 하며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청둥오리를 볼 수 있습니다.

청둥오리는 겨울철에 날아와 이렇게 무리를 지으며 생활하다가 봄·여름이 오면 부부가 짝을 이뤄 생활합니다. 청둥오리의 번식지는 러시아인데 봄과 여름에는 러시아에서 새끼를 기르고 겨울이 찾아올 즈음 다시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청둥오리의 본성에 의한 이동이 정든 곳이 그리워 어김없이 힘들고 먼 길을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 '오리 제 물로 찾아간다.'라는 속담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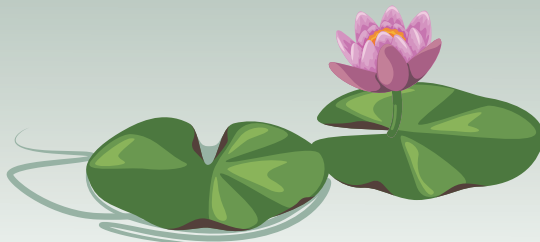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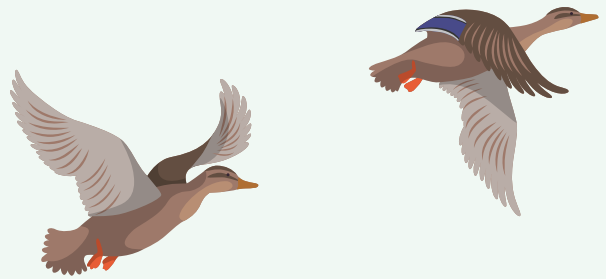
그런데 이 청둥오리들이 요즘 본성을 잊고 텃새가 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텃새란 계절에 따른 이동을 하지 않고 일정한 지역에서 살면서 번식하는 새를 말하는데,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인해 평균기온이 높아지면서 이동을 포기하는 철새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오릿과 새들은 약 48종에 이릅니다. 그중 흰뺨검둥오리와 원앙만이 우리나라에서 번식하고 다른 새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오는 철새들입니다. 이 철새들의 숫자는 2020년 12월에 전국의 습지 206곳을 조사한 결과 약 111만여 마리였는데, 이 철새들이 모두 텃새가 된다면 우리 생태계가 이들을 부양할 수 있을까요? 오리가 늘어나면 오리의 먹이가 되는 종이 줄어들 것이고 같은 먹이를 먹는 다른 동물들은 살아남기 어려워 결국 생태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 # 04

오늘 우리는 청둥오리를 보며 기후 변화가 우리 자연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리 새끼는 길러놓으면 물로 가고 꿩 새끼는 산으로 간다'라고 하지요, 저마다 타고난 대로 살아가듯이 철새들의 하늘길이 올해도 내년에도 자유롭게 열려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김지혜





# 설마가 사람 잡는다.

: 요행\*을 바라지 말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예방해 놓아야 한다는 말

“오후에 비 온다는데, 빨래 미리 걸어 놓고 시장 다녀오자”

“에이, 설마 하늘이 이렇게나 맑은 데 무슨 비가 와 햇볕에 바짝 말리게 그냥 뒤”  
우르르 쿵쿵, 시원하게 잘도 내리는 비.

“난로 옆에 택배상자 두지 말랬지? 위험하단 말이야”

“에이, 설마 불이라도 옮겨 붙을까봐? 그냥 뒤 거기 두는 게 편하단 말이야”  
붉은 화염이 활활.... 거기 119죠?

실제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걸 알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 안일한 자세, 방심, 혹은 귀찮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을 그냥 지나치며 살고 있을까요?



# # 05

‘그럴 일은 없을 거야’라며 마음을 놓고 있던 일이 예상치 못하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예방해 놓아야 합니다. 저는 이 속담을 자연과 관련된 재난영화를 볼 때마다 떠올리곤 했습니다. 강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도시가 붕괴하면서 물에 잠긴다든지,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 바닷물이 차가워져 해류의 흐름을 바꿔, 지구 전체가 빙하로 덮인다든지, 갑작스럽게 발생한 슈퍼 토네이도가 온 마을을 쓸대밭으로 만드는 내용 등 폭설, 태풍, 홍수, 호우, 황사, 산불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영화를 볼 때마다 “에이 설마, 저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겠어? 영화니까 뭐들 못 만들어?”라며 그럴듯한 CG에만 눈길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만 보던 재난은 어느새 우리 주변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빙하가 녹는 등 지구 곳곳엔 기후변화, 아니 ‘기후재앙’에 가까운 재난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엔 전례 없는 폭염과 산불로 불덩이인 곳이 있는가 하면, 어딘가는 최강한파로 우리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았던 자연재해가 손도 쓰질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에 파고들면 어떡하죠? 설마가 진짜로 사람 잡으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탄소중립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속리산국립공원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철거하며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부터 먼저’란 마음가짐으로 실생활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탄소발자국을 지우는 것에 동참해주세요.

윤주영

\*요행 : 뜻밖에 얻는 행운



# 방귀가 잦으면 똥 싸기 쉽다.

: 어떤 일이 생길 기미가 잦아지면 반드시 그 일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지구온난화를 아시나요?’**

**‘기후변화’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런 질문이 무색할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의 온실가스로 인해 온난화된 지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인데요, 매년 되풀이되는 지구의 이상기후 현상은 그저 당연한 연례행사가 되어 가고 있으며 기온과 강수량이 예전과 달라졌음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최근에 많은 매체와 칼럼 등을 통해 우리는 ‘탄소중립’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탄소중립’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탄소중립은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는 무엇이 흡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바다’와 ‘숲’입니다. 바닷속 플랑크톤과 숲속의 식물이 광합성을 통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립공원의 잘 보전된 자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하기 등과 같은 누구나 알고 있는 작은 실천이 모이면 중요한 노력이 되어 국립공원의 탄소 흡수 능력을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쉽다’라는 말이 있듯 잦은 징조는 결국 빠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쉬운 법이니까요.

추인식

\*상쇄 :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지는 일

# 06

# 숲이 커야 짐승이 나온다.

: 일정한 바탕이나 조건이 갖추어져야 그것에 합당한 내용이 따르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여러분은 ‘국립공원’이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는 아름드리나무들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울창한 숲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속리산의 깊고 높은 숲의 풍경을 보고 있다면 ‘숲이 커야 짐승이 나온다’라는 속담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속리산은 보은군, 괴산군, 상주시, 문경시에 걸쳐있는 면적이 넓은 국립공원으로 동·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춘 공간입니다. 그 덕분에 이 속담처럼 아주 많은 동·식물이 속리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속리산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대표하고 있는 깃대종\* 2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망개나무로 1920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망개나무는 자연 번식이 어려워 집단으로 자생하는 곳이 거의 없는데, 아주 드물게 속리산국립공원 내에 우리나라 최대 망개나무 군락지\*\*가 있어 천연기념물 제26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번식력이 약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될 정도였으나, 현재는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하늘다람쥐는 천연기념물 제328호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커다랗고 까만 눈이 매력적인 동물입니다. 하늘다람쥐는 앞발과 뒷발 사이의 비막\*\*\*을 사용하여 나무 사이를 이동합니다. 네 발을 넓게 펴서 바람을 타고 보통 20~30m를 활공하며 최대 100m까지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땅이 아닌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하늘다람쥐는 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무리해서 이동하다가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속리산국립공원에서 하늘다람쥐가 깃대종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하늘다람쥐가 활공을 하며 이동할 수 있도록 키가 크고 작은 나뭇들이 적절히 섞여 있으며, 활엽수와 침엽수가 적절하게 자생하기 좋은 생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숲이 커야 짐승이 나오듯,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자연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도 가능할 것입니다.  
더욱 푸르고 맑은 자연 속에서 동식물이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을 아껴주세요.

지아람

\*깃대종 : 생태계의 여러 종 가운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생물종

\*\*군락지 : 동일한 생육 조건의 지역에서 같이 자라는 식물의 무리가 서식하는 곳

\*\*\*비막 : 활공 또는 비행을 행하는 척추동물에서 주로 앞다리, 몸 쪽, 뒷다리에 걸쳐 쳐진 막

# 07



#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

: 뒷일은 어떻게 되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선 당장 좋으면 그만인 것처럼 무턱대고 행동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자연 생태계에서도 사람들이 당장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했던 행동으로 많은 피해를 초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외래생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서식하는 생물이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게 된 생물을 말하며 속리산의 대표적인 외래생물로는 강에 서식하는 큰입배스가 있습니다. 이 큰입배스는 '외상이면 소[당나귀]도 잡아먹는다.'라는 속담처럼 미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되었습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양식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조리법도 잘 모를뿐더러 음식으로 만들어도 맛이 없다 보니 큰입배스를 찾는 사람이 점차 적어지게 되었고 양식장은 방치되어갔습니다. 결국 방치된 큰입배스들은 양식장을 탈출하여 현재 우리나라 민물 생태계를 어지럽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생물이 우리나라의 환경과 맞지 않을 건데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바로 큰입배스의 적응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강하고 우리나라에 천적도 거의 없으며, 4월~6월에 최대 1만 개 정도의 치어\*를 산란하여 새끼가 클 때까지 수컷이 지키는 특성 덕분에 치어의 생존율도 높습니다. 또한 큰입배스는 보통 30~60cm까지 크며 이름처럼 큰 입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보다 작고 움직이는 생물은 모두 공격하여 먹어버리니 빠르게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큰입배스는 우리나라 강이나 댐, 저수지 등에 토종 물고기를 다량 섭취하면서 생태계의 큰 피해를 미치게 되었고, 환경부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속리산국립공원에서는 큰입배스를 퇴치하기 위해 산란 기간에 인공산란장과 작살을 이용하여 제거 하고 있으며 탐방객도 참여할 수 있는 큰입배스 포획 및 수매 봉사활동을 통해 퇴치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치어 : 알에서 깨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물고기

# # 08

‘외상이면 소[당나귀]도 잡아먹는다.’처럼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하지 않고 잠시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그 불행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생태계 교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라져가는 토종 동·식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강현지



#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다.

: 마치 구렁이가 소리 없이 슬쩍 담을 넘어가듯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끊고 맺음을 바로 하지 않고 슬그머니 얼버무리 넘어가려는 짓을 빗대어서 하는 말

구렁이는 유린목 뱀과 속하는 뱀으로써 우리나라 육지에 사는 뱀 중 가장 큰 뱀입니다. 옛날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덕에 이름도 아주 친숙하게 여겨지나 현재는 인간의 남획과 서식 환경의 변화로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어 멸종위기 2급 생물로 지정되었습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초가지붕과 천장 사이에 구렁이가 사는 경우도 많아 사람과 구렁이가 같이 공존하며 사는 건 꽤 일상적이었습니다. 친숙했던 구렁이는 옛날이야기에 등장하여 숭상받으며 가정에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여겨졌으며, 구렁이는 독이 없고, 공격성도 약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여 굳이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구렁이가 몸에 좋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남획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구렁이가 나온 옛날이야기는 알아도 구렁이를 실제로 본 경험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듯 구렁이와 같은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식 환경의 변화에도 원인이 있지만, 구렁이처럼 인간의 남획으로 사라져 간 경우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서식 환경의 변화 또한 인간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확인된 적 없는 사실로 인한 남획으로 너무도 친숙했던 구렁이가 이제는 너무도 낯선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 # 09

옛날에는 구렁이가 담을 넘어 집을 떠나는 것은 이제 그 집의 공간에 쥐가 없을 정도로 그 집안이 몰락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한다고 합니다. 구렁이가 우리 곁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몰락하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넘어가지 말고 멸종위기 동·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더는 지붕 속에서 같이 살아가며 이른 아침 마당을 가로지르는 구렁이를 볼 수는 없겠지만, 잘 보전된 산과 들에는 그들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추인식

# 자식이 부모 사랑 절반만 해도 효자다.

: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말

우리나라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자식이 부모 사랑 절반만 해도 효자다.'라는 속담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자연에는 많은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부모의 사랑처럼 모든 생물을 품어주는 식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끼입니다.

이끼는 원시식물로 잎과 줄기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물에서 육지로 올라온 최초의 육상생물입니다. 그래서 그늘지고 습기가 있는 곳에 자라며 자연에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에게는 척박하고 건조한 곳에 이끼가 정착하여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게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만들어주어 식물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주고, 동물에게는 수분과 먹이,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면적당 이파리가 들어가는 양(잎 면적 지수)이 활엽수보다 30배가량 높아 광합성을 더 활발히 합니다. 뛰어난 공기 정화 능력으로 공기 중의 탄소 함량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를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활엽수 : 평평하고 넓은 잎이 달리는 나무의 총칭

# # 10

이렇게 이끼는 생태계에서 많은 생물이 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신을 내어주면서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우리에게도 깨끗한 공기를 줍니다. 숲이 없는 곳에 숲을 만들고 숲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생물을 품으며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끼의 꽃말은 '모성애'라고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며 보금자리가 되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연 속에서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이 없으면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 사랑 절반만 해도 효자다.'라는 속담처럼 우리를 품어주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끼를 생각하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절반만 사랑해도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만큼 자연을 사랑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지

# 물은 흘러야 썩지 않는다.

: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람은 언제나 일하고 공부하며 단련하여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또 변질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옛 조상들은 흐르는 물이 시작되는 산은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 생각하였고, 흐르는 물은 썩 새 없이 변화하는 현상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자연을 부르는 말인 '산수(山水)'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단어라고 합니다. 진리는 흐르는 물처럼 살아서 흐르며, 산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많은 산속에 있는 계곡을 찾아 그곳에 구곡(九谷)이라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구곡(九谷)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홉 굽이\*의 계곡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굽이가 가득 차 있는 계곡이라는 뜻으로, 물이 흐르는 계곡과 그 배경이 되는 산과 주변 풍경을 모두 같이 부르는 유교의 사상적 공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구곡(九谷)은 남한에만 그 이름이 남아 전해지는 곳만 102곳에 이르고, 문헌상에는 250여 곳이 등장할 정도이니 조상님들께서 얼마나 구곡(九谷)을 좋아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굽이 : 휘어서 구부러진 곳, 굽어진 곳을 세는 단위



# # 11

우리 속리산국립공원 내에도 화양구곡과 쌍곡구곡, 선유구곡, 갈론구곡 4곳의 구곡(九谷)이 있습니다. 이중 화양구곡은 우리나라의 그 많은 구곡(九谷) 중에도 유일하게 국가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곳으로 아주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며 우암 송시열을 모시던 화양서원이 소재한 곳이기도 합니다. 쌍곡지구의 쌍곡구곡 또한 소금강으로 대표되는 기암괴석과 그 사이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이 마음속까지 시원함을 주는 명소로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이는 물은 썩기 마련인 것처럼 이 시련도 흐르는 물처럼 흘러보내시길 바라며, 조용한 화양구곡과 선유구곡을 찾아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고 유유히 흐르는 계곡물을 바라보며 새로운 마음과 다짐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추인식



# 새 까먹는 소리

: 새가 낱알을 까먹고 난 빈 껍질 같은 소리라는 뜻으로, 근거 없는 말을 듣고 퍼뜨린 헛소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을이 되면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숲속은 변신을 시작합니다. 식물들은 열매를 맺고 알록달록하게 옷을 갈아입으며, 동물들은 먹이를 찾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입니다. 그중 작고 귀여운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도토리나 밤 같은 열매를 먹기도 하고 땅속에 숨기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다람쥐를 보며 외모가 비슷한 청설모를 떠올리곤 합니다. 귀여운 다람쥐와 외모가 닮은 청설모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외래종이다, 다람쥐를 잡아먹는다.' 등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속담에는 '새 까먹는 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근거 없는 말을 듣고 퍼뜨린 헛소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자성어로는 '유언비어'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설모는 속담처럼 근거 없는 이야기로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외래종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청설모의 영어 이름은 Korean squirrel로 이름에 Korean이 들어가는 만큼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동물입니다. 조선시대에 그림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꼬리털은 붓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청설모는 '청서'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푸를 청(靑)에 쥐 서(鼠)로 '푸를 청'을 쓴 이유는 청설모가 소나무와 잣나무같이 사계절 잎이 푸른 곳에서 살기에 '푸를 청'을 써서 청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다람쥐를 잡아먹는다?** "청설모가 다람쥐를 다 잡아먹어서 다람쥐가 없다." 이 말 또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다람쥐는 땅 위에서 생활하며 땅에 떨어진 열매를 먹고 겨울잠을 잡니다. 하지만 청설모는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다. 겨울에 다람쥐가 보이지 않으니 청설모가 다람쥐를 잡아먹는다는 오해를 하는 것이지요.



# # 12

생태계의 불균형으로 청설모의 개체 수는 증가했지만, 사람들에 의해 줄어든 서식지와 먹이가 부족해진 탓에 농가에 피해를 주게 되었으며, 색이 검고 다람쥐보다 크고 귀엽지 않은 외모에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상으로 각인되어 근거 없는 헛소문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해가 생기면 말로 해명할 수 있지만 청설모는 우리에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청설모의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봐주고 아껴주는 건 어떨까요?

강현지





# 구슬이 서 말이라도 꺾어야 보배다.

: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해 쓸모 있게 만들어야 값어치가 있다라는 말

속리산국립공원에 위치한 법주사는 553년 의신조사가 창건해 천년의 세월을 자리하고 있으며,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문화적·역사적으로 매우 우수한 곳으로 국보도 3점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보는 금강문을 나서면 왼쪽에 있는 제64호 석연지입니다. 돌로 만든 연꽃 모양의 연못이란 뜻으로 구름 문양으로 장식된 간석\*에 석연지를 떠받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화강암을 세밀하고 정교하게 조각한 8세기 통일신라 시기의 작품으로 진흙 속에서도 맑고 깨끗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세상에 물들지 말고 깨끗한 본성을 간직하라는 불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왕문을 나서자마자 만날 수 있는 국보 제55호 팔상전입니다. 팔상전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목탑 중 유일하게 근대 이전에 지어진 목탑입니다. ‘팔상전’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8층 목탑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팔상전은 석가모니 부처의 일생에서 중요한 8가지를 그린 팔상도가 있어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법주사 팔상전은 우리나라 탑 중 가장 높은 건축물이며 하나뿐인 목조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상전 뒤에 있는 국보 제5호 쌍사자석등은 통일신라시대 석등으로 두 마리의 사자가 가슴을 맞대고 두 팔로 상대석\*\*을 받치고 있는 형상으로 갈기와 다리의 근육까지 표현될 정도로 섬세하게 조각되어 예술성도 뛰어납니다. 불교에서 등은 부처님의 말씀이 인간 세상으로 밝고 넓게 퍼지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하니 상징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간석 : 석등의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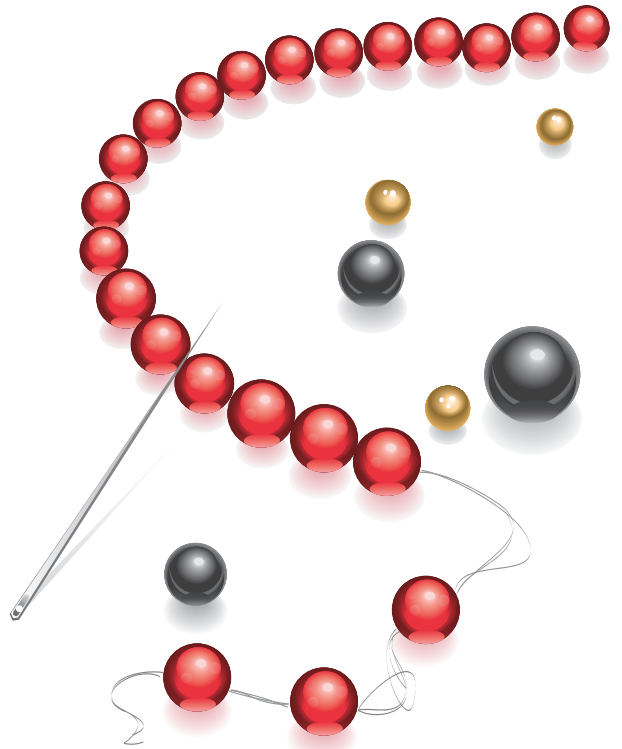
\*\*상대석 : 간주석의 상면에 놓이는 부재로 상면에는 화사석이 놓임

# # 13

법주사에 있는 국보들을 알아보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에 신비로움이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시대가 변화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되고 훼손되는 문화재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지표를 알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면 어떤 문화재는 조금 신기하게 생긴 돌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끊임없이 문화를 알리고 보호하자'라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의 구슬을 꿰었을 때 비로소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보배가 되지 않을까요?

김용현



#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기뻐한다.

: 소나무와 잣나무가 서로 비슷하게 생겨 흔히 가까운 벗을 일컬으니, 친구나 자기편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함을 이룰 때 쓰이는 말

7월이 되면 숲은 봄철의 싱그러운 연둣빛 색깔을 걷어내고 어느덧 짙푸른 녹색으로 탈바꿈하여 여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듯하고, 5월에 훑날리던 소나무의 송홧가루도 이제는 가라앉아 짙어지는 잎과 함께 열매를 맺고 결실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속리산에 오시면 사시사철 짙푸른 소나무 숲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속리산 초입에 조선 7대 임금인 세조가 정이품의 벼슬을 하사했다는 소나무, 정이품송이 반갑게 맞이해 주며, 계속해서 가다 보면 오리숲과 세조길 입구 들머리숲에서 아름답리 소나무 군락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무성한 소나무 숲 사이사이에 소나무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잣나무와 전나무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마치 서로 매우 가까운 벗처럼 느껴져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라는 속담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철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는 표측한 잎이 비슷해서 어떤 나무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지만, 잎의 개수와 열매의 모양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잎의 경우 소나무는 2개의 잎이 묶여서 나고, 잣나무는 5개의 잎이 묶여서 나고, 열매는 소나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솔방울로 계란형으로 생겼지만, 잣나무의 열매는 솔방울보다 더 길쭉하고 크며 실편\*이 뒤로 젖혀져 있는데 이 실편에 잣을 품고 있습니다.

\*실편 : 솔방울을 이루고 있는 비늘모양의 조각



# # 14

예부터 소나무는 우리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척박한 땅에서도 잘 견디고 추운 눈 서리에도 푸르름을 간직하기에 선비가 가져야 할 절개와 굳은 의지의 대상으로 여겼으며, 장수의 상징인 '십장생(十長生)'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침엽수에서는 인간의 건강에 이로운 피톤치드까지 내어준다고 하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벗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가까운 벗인 소나무를 허가 없이 함부로 벌목하거나 캐내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나무는 비슷한 생김새여서일까요? 아이러니하게 영어로 둘 다 같은 단어인 Pine을 사용하는데, 앞 글자 P를 F로 바꾸면 발음도 매우 비슷한 Fine으로 '건강한, 괜찮게'란 뜻을 가졌다고 하니, 꿈보다 해몽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에게 매우 이로운 것만큼은 틀림없는 듯합니다. 여러분들도 속리산에서 Pine(소나무, 잣나무)을 만나 Fine(건강한)하시기 바라면서 소나무와 잣나무의 사이처럼, 사람도 자연과 더욱더 가까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윤태현



#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한 가지 재주는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굼벵이의 몸집은 작고 통통해서, 이동할 때는 느릿느릿 굼뚱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조건을 가진 굼벵이도 잘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데굴데굴 구르기'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굼벵이가 땅에 닿자마자 자기 몸을 동그랗게 말고 천적을 피해 안전한 장소로 굴러가는 것처럼,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재주가 있다.'라는 뜻을 가진 속담은 우리에게도 친숙합니다. 그렇다면 굼벵이는 왜 몸을 굴러 이동할까요? 굼벵이는 등으로 뒤집어 이동하면 눈에 빛을 받는 정도가 바르게 기어가는 것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안 되는 굼벵이들이 노출되는 면적을 줄이기 위한 지혜를 발휘한 것이지요. 그렇게 흙으로 들어간 굼벵이는 매미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굼벵이는 어떻게 매미가 되는 걸까요? 매미는 여름을 대표하는 곤충으로 종에 따라서 짧게는 2~7년, 길게는 17년을 땅속의 애벌레(굼벵이)로 있다가 한여름 맑은 날 해 질 녘 즈음 땅 위로 천천히 올라와 우화\* 하기 좋은 장소로 이동합니다. 우화는 2~4시간이 지나도록 계속되어 마침내 어른 매미가 되는데 굼벵이가 잘 구르듯이 매미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땀땀땀 우렁차게 우는 것입니다. 매미는 수컷만이 울 수 있는데 수컷의 배에는 소리를 내는 데 쓰이는 근육과 막이 있어 이것을 줄였다 늘였다 하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빈 공간을 통해 소리를 증폭시켜 더욱더 크게 낼 수 있습니다.

수컷 매미가 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짝을 만났을 때, 그리고 짝짓기 상대를 찾을 때 우는데 특히 본능적으로 종족 보존을 위해 짝짓기 상대를 찾을 때 더욱 크고 우렁차게 웁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꼭 참고 올라온 매미는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를 살면서 짝을 찾고 알을 낳아서 매미로서의 일생을 마감하는데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요? 그 오랜 세월을 땅속에서 견뎠는데 고작 보름 정도밖에 못사니 말입니다. 그러니 매미가 우는소리에 너무 시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아주 멋진 노래를 부르는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화 : 곤충이 유충 또는 약충이나 번데기에서 탈피하여 성충이 되는 일



# # 15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며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건 아마도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나만이 가진 재주를 찾기 위해 열심히 살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동안 흙 속에서 준비를 하고 며칠 동안 불타오르게 사는 매미를 보며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건 어떨까요? 자기 객관화에서 나오는 자아성찰, 그리고 바른 자존감에서 나오는 자신감은 우리의 인생에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 속리산국립공원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윤주영



#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라

: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그대로 지나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욕심 많은 사람이 잇속\* 있는 일을 보고는 가만있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지나가고 햇볕이 따사롭게 느껴질 때 들녘의 벼는 누렇게 변해갑니다. 이 시기에 들판에는 농부들의 마음을 애태우는 불청객이 찾아오는데, 다름 아닌 웅기종기 모여 들판의 벼 이삭을 먹어대는 참새들입니다. 참새는 해로운 곤충을 잡아먹어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만 가을에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에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라'라는 속담도 있는데, 그 뜻은 욕심 많은 사람이 이익을 보고 그대로 지나치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껏 비가 내린 뒤 가을을 맞이하는 속리산 숲속에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생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름 아닌 가까이 보면 예쁜듯하고, 오래 보면 어딘가 귀여워 보이기도 한 버섯입니다. 속리산 세조길을 걷다 보면 쓰러진 나무나 숲속 그늘진 곳에 드문드문 또는 수두룩하고 탐스럽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탐스럽고 아름다워서인지, '숲의 요정'이라는 별명이 어울리기까지 합니다.

\*잇속 : 이익이 되는 실속



# # 16

버섯은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세균류와 함께 분해자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동물의 배설물이나 사체를 치우는 것은 주로 세균류의 몫이고, 숲에서 죽은 풀이나 나무 등을 분해하는 것은 버섯이 맡고 있는데 그래서 버섯을 '숲의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버섯이 분해한 물질은 거름이 되어 다른 식물에게 영양분이 되고 영양분을 흡수한 식물은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동물들이 다시 먹고 살아가면서 자연은 돌고 돕니다. 이렇듯 버섯은 돌고 도는 생태계의 물질순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구에 사람은 없어도 아무 탈이 없지만, 버섯이 없으면 큰일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맘때 속리산 숲에서 마치 농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참새처럼 일부 욕심 많은 사람들이 버섯을 함부로 채취해 가면서 숲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버섯은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다 독을 가진 것도 있기에 자칫하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야생의 버섯을 잘 못 먹어 생명을 잃은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버섯은 야생의 것이 아닌 마트나 시장에서 사서 드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이처럼 자연에서 매우 중요한 버섯을, 욕심 많은 참새가 아닌 이로운 참새와 같은 마음으로 소중히 아껴주시길 바라며 숲에서 만났을 때는 눈으로만 예쁘게 바라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윤태현





# 도토리 키 재기

: 크기가 고만고만한 도토리끼리 재 보았자 별 차이가 없다는 말



어린 시절 친구들과 뒷산에 올라 '작은 도토리를 누가 더 많이 모아 오나?' 내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그마한 손으로 모으면 뭐 얼마나 모았겠어요? 하나하나 세어 보아도 개수가 똑같거나 한두 개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도토리 키 재기 한 거네!" 하며 친구들과 까르르 웃던 기억이 납니다. 크기가 비슷한 도토리끼리 키를 잰다는 뜻으로 서로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상황에 주로 쓰인다 하니 별안간 귀여운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더 크다! 아냐. 내가 더 커!' 실제로 도토리들이 서로의 키를 재고 있진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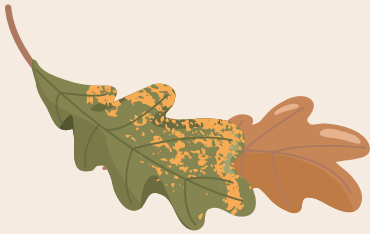
그렇다면 서로가 더 크다고 하는 도토리는 어떤 나무에 열릴까요? 아미"참나무!"하고 정답을 외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참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는 없고, 이렇게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들을 총칭해서 참나무라고 부릅니다. 또한 참나무의 열매인 도토리는 예부터 구황식물\*로서 흉년 때마다 백성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었고, 단단하고 쉽게 썩지 않는 수피\*\*는 각종 농기구나 솥을 만드는 데에도 쓰일 만큼 백성들의 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진짜 나무라고도 불렸습니다.



\*구황식물 : 흉년 따위로 기근이 심할 때 농작물 대신 먹을 수 있는 야생 식물

\*\*수피 : 나무의 껍질. 줄기의 코르크 형성층 바깥쪽에 있는 조직





# # 17

‘참나뫼과’에는 6형제로 불리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떡을 감쌀 수 있을 만큼 잎이 넓은 떡갈나무, 피난 간 임금님 수라상에 올려졌던 도토리가 가장 큰 상수리나무, 나무껍질이 두껍고 폭신하여 코르크 재료로 이용하는 굴참나무는 세로로 골이 파여 있어 골참나무라고 불리는 굴참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짚신 신던 시절 밑창에 이 나무의 잎을 깔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신을 갈아 신는 신갈나무는 속리산에서 자생하는 참나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피가 벗겨짐을 보고 옷을 갈아입는다는 갈참나무와 잎과 도토리가 가장 작은 졸병 나무인 졸참나무 모두가 참나무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도토리는 다람쥐와 청설모에게 맛있는 먹이가 됩니다. 여기저기에 도토리를 보관해 놓고 먹이활동이 어려운 겨울철에도 좋은 먹이가 되어줍니다. 그중 발견하진 못한 도토리는 다시 참나무가 되니 국립공원을 탐방하시는 분들께서 작고 귀여운 도토리를 가져가지 말아 주세요.

숲속에서 나는 것은 크기와 모양에 상관없이 어떤 것이 더 아름답고 또 어떤 것이 더 미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토리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애들아, 도토리 키 재기할 필요 없어. 너희들은 따뜻한 엄마 품속인 숲속 안에서 모두 함께하는 소중한 친구들이란다.”

윤주영

“애들아, 도토리 키 재기할 필요 없어.  
너희들은 따뜻한 엄마 품속인 숲속 안에서 모두 함께하는  
소중한 친구들이란다.”



# 겨울이 지나지 않고 봄이 오랴

: 시련과 곤란을 극복하여야 승리와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잎과 가지를 꺾어 손으로 비비면 생강과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생강나무는 3~4월에 잎보다 노란 꽃을 먼저 피우며 봄을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산수유나무도 비슷한 시기에 잎보다 노란 얼굴을 먼저 보여주세요. 봄의 전령인 두 나무는 굉장히 닮아서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 세가지를 알려 드릴까 합니다.

우선 꽃이 피는 위치예요. 생강나무는 꽃자루가 없이 줄기에 거의 붙은 채로 옹기종기 뭉쳐진 듯 피는데 산수유나무는 가지 끝에서 꽃을 피우지요. 두 번째는 잎 모양입니다. 생강나무 잎은 포크 모양이나 왕관 모양처럼 세 갈래로 갈라짐이 있지만, 산수유나무는 긴 타원형이나 난형처럼 생기고 잎맥\*이 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피, 나무껍질의 모양입니다. 생강나무는 매끈하고 흰색 무늬가 있는데 산수유나무는 불규칙하고 지저분하게 벗겨짐이 있는 것이 다른 점이지요. 이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잎맥 : 식물의 잎에 있는 관다발



숲은 생강나무와 산수유나무를 시작으로 색색의 수줍은 꽃을 내밀며 봄이 왔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봄이 되었으니 꽃이 피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겨울이 지나지 않고 봄이 오랴' 라는 속담처럼 아름다운 꽃은 그냥 봄이왔기 때문에 피었던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난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잘 버텨준 덕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코끝이 시린 초봄에 속리산을 찾아주실 땐 추운 겨울을 잘 버텨준 나무와 꽃들에게 "고마워, 네가 오기를 기다렸어" 라고 말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진다면 숲은 또다시 우리에게 따뜻하고 화사한 봄을 선물할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지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시련으로 우리는 앞으로 몇 개의 계절을 더 잃어버려야 할까요? 활동과 이동에 제한을 받는 요즘 봄날의 벚꽃놀이, 여름날의 신나는 물놀이, 가을날의 단풍구경, 겨울날의 멋진 설경까지, 당연하듯이 누렸던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특별한 나날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개인 방역에 힘쓰시는 여러분! 조금 더 따뜻한 봄을 위해 조금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잃어버린 계절을 다시 찾고 하루빨리 자연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김용현



# 얼굴 보아가며 이름 짓는다.

: 무슨 일이나 구체적인 조건과 특성에 알맞게 처리하여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야? 밥은 먹었니?” “○○씨, 오늘 하루 어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듣고 또 제일 많이 할까요? 아무래도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가지고 그 자체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이름, 오늘은 속리산에서 만나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나무를 알아볼까 합니다.

나무줄기를 꺾어 물에 넣으면 물이 푸르스름해진다는 물푸레나무, 나뭇가지가 층층이 나서 층층나무, 열매의 모양이 쥐의 똥처럼 생긴 쥐똥나무와 마치 부채를 펴 놓은 듯 아름다운 미선나무도 있습니다. 줄기를 자르면 아기의 똥 같은 노란 액체가 나온대서 애기똥풀, 겨우겨우 살아가는 겨우살이, 줄기 속을 밀어내면 하얀 줄이 나오는 데 이 모양이 국수 가락과 닮았다 하여 국수나무, 사슴뿔처럼 보드랍고 황금빛을 가진 아름다운 수피의 녹각나무는 발음이 쉬운 노각나무라고 바꿔 부르며 잎자루가 길어 약한 바람에도 잎이 별별 떨어지는 사시나무도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오리나무는 왜 오리나무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껍썩 우는 오리를 상상하셨겠지만 사실 오리와 전혀 상관이 없이 거리 표시를 위해 5리마다 심었다고 해서 오리나무라고 부릅니다. 속리산 오리숲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과거 마을 입구에서 법주사까지의 길이가 5리, 약 2km가 걸린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아름다운 숲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꽃과 나무의 이름은 수피와 잎의 특징, 꽃과 열매의 모양, 가시의 생김새 등 속담처럼 얼굴을 보아가며 이름을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유래를 가진 나무들의 이름 덕분에 기억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부름으로써 존재가 되고 서로에게 가치 있는 의미가 되니 속리산 탐방 중 아직 이름을 가지지 못한 작은 풀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어울리는 멋진 이름을 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윤주영



##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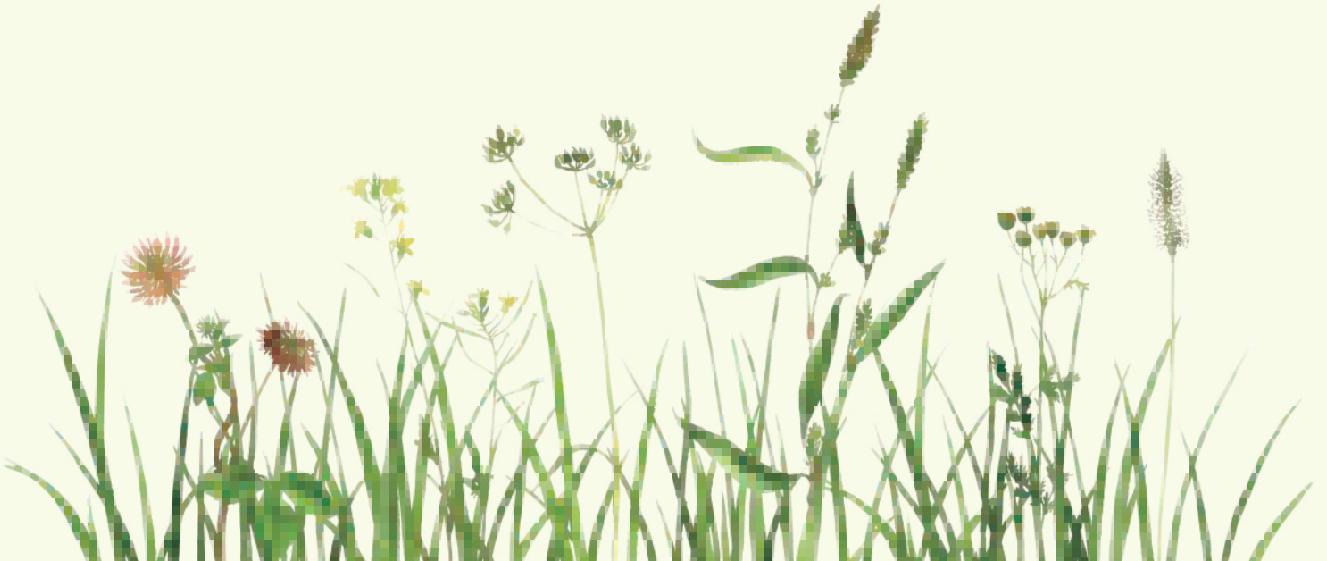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 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 일이 작을 때에 처리하지 않다가 결국에 가서는 쓸데없이 큰 힘을 들이게 됨을 이르는 말

어릴 적, 방학 동안 일기를 써 오라는 숙제는 꼭 있었지요? 하지만 제때 일기를 쓴 사람은 얼마 없었을 것입니다. 방학 내내 산으로 매미나 잡으러 다니고 다리 밑에서 물장구를 치며 시간을 보내니 어느새 개학날은 다가오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밀린 일기를 하루 동안 다 써야 했기 때문이지요. 가족들을 붙잡고 그날 날씨가 맑았는지 비가 왔는지 물어 가며 생각나지도 않은 일을 기억해내려 머리로 쥐어짖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매일 일기를 써왔으면 힘들지 않았을 거 아니야?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고 있네”라고 나무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일이 커지기 전에 처리하였으면 쉽게 해결될 일을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더 큰 힘을 들이게 되는 경우를 뜻하는 이 속담은 지금의 펜데믹 상황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코로나 19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든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초기에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증상이 있을 때 즉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았다면 비교적 적은 힘을 들여 ‘호미’로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래로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는데, 코로나와 같은 전염성 바이러스는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록적인 가뭄과 게릴라성 폭우, 시기에 맞지 않는 날씨 변화 등 상상할 수 없었던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통 누렇게 덮인 최악의 황사를 겪고 있는 중국, 2000년 만에 가장 심한 가뭄과 폭염 그리고 폭설을 경험 중인 유럽이 바로 그 예이지요.

# # 20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광합성을 하여 산소를 배출하는데, 인간의 무분별한 채취와 훼손으로 인하여 대기 환경의 균형을 유지해주던 식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구온난화에 가속을 붙이는 꼴이 되었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피해가 극심해지고 피부에 와닿아서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조절하고자 하지만 그조차 아직 미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되겠기에 속리산국립공원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천연재료의 탄소중립 체험키트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의 친환경 생활 습관 실천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 또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의미의 탄소중립, 더 늦지 않도록 모두 함께 '호미' 들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김용현



# 급하면 관세음보살

: 흔히 급하면 아무나 관세음보살을 외운다는 뜻으로, 당장 아쉬울 때만 관세음보살을 찾지 말고 평소에 덕을 쌓아서 급한 일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

불교에는 부처와 보살이 있습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분이고 보살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는 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처는 손동작(수인)을 하고 있고 보살은 물건(지물)을 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봤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소원을 빌거나 무언가가 간절할 때 찾곤 하는데요. 그래서 속담 중에 '급하면 관세음보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당장 아쉬울 때만 관세음보살을 찾지 말고 평소에 덕을 쌓아서 급한 일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관세음보살을 찾는 것일까요? 관세음보살은 현생, 현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생\*의 소리를 듣고 빠르게 구제해주는 보살이라고 알려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천 개의 손과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모든 중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등류신'이라는 것입니다. '등류신'이란 각각의 중생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구원해주는 신이라는 뜻으로 예를 들면 아이를 원하는 중생에게는 아이의 모습으로 부모를 원하는 중생에게는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을 구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 : 사람과 다른 동물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생물을 가리키는 말



# # 21

속리산국립공원에 위치한 법주사에는 관세음보살이 계신 원통보전이 있습니다. 원통보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관세음보살을 원통대사라고 부르기도 하며 원통은 원하면 통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각 안을 보게 되면 관세음보살이 연꽃이라는 물건(지물)을 가지고 있으니 속리산에 방문하신다면 유심히 보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닳았을 때 급하게 관세음보살을 찾아 소원을 빈다면 그 소원이 이뤄질까요? 1%의 행운을 잡기 위해선 99%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요행을 부리기보다는 꾸준하게 노력하고 덕을 쌓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현지



# 까마귀 길 검다고 속조차 검은 줄 아느냐

: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양만 보고 할 것이 아니라는 말

보랏빛으로 반짝이는 검정 깃털, 커다랗고 까만 눈, 뚱뚱한 부리, 까악까악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가진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 흉조로 일컬어집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가 고향인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어 오히려 친숙하기까지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살거나 찾아오는 까마귀는 4종류가 있고, 그중 까마귀와 큰부리까마귀는 텃새로 속리산에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독 까만색을 가진 동물들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 가까이하지 말라는 등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를 끼치는 행동을 ‘양갚음’이라고 하는데, 마치 까만 동물은 사람에게 양갚음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까마귀는 양갚음보다는 ‘안갚음’을 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안갚음’이란 자식이 자라서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일을 말하는 순우리말로 이 말의 어원이 되는 이야기는 바로 까마귀의 효심입니다. 까마귀의 효심을 말하는 말로는 안갚음보다 ‘반포지효’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것입니다. 반포지효는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성이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라서 부모를 모신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미루어보았을 때 까만 동물이 양갚음을 하는 나쁜 동물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오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까마귀 길 검다고 속조차 검은 줄 아느냐’라는 속담처럼 겉모습만으로 오해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 22

그 모든 편견에도 꿋꿋하게 살아남아 이제는 이 숲에서 한자리를 멋지게 차지하고 있는 까마귀처럼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에서 중심을 잡고 쉽게 타인에게 휩쓸리거나 휩쓸어버리지 않고 까마귀처럼 꿋꿋하게 이겨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지아람



# 깊신도 제 짝이 있다.

: 깊이로 만든 신도 오른쪽, 왼쪽으로 만들어져 짝이 있다는 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도 어울리는 제짝이 있다는 뜻

5월의 햇살과 바람 속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봄비 끝에 만난 푸른 하늘은 눈을 부시게 하고, 속리산의 푸른 숲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골짜기마다 화사한 붉은빛을 뿜내는 산철쭉꽃, 병꽃나무꽃이 피었고, 주렁주렁 매달린 으름꽃과 등나무꽃은 황홀한 향기로 벌과 나비를 부릅니다. 과연 5월의 속리산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갖 벌과 나비가 서로 앞다투어 화려한 꽃들을 찾아갈 때, 족두리풀꽃은 수풀 속 그늘에 홀로 있는 듯 없는 듯 수줍게 피고 있습니다. 벌과 나비가 언제 올지 몰라 제 차례를 기다리다가 시들어버릴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마저 듭니다. 꽃이 그 옛날 혼례를 치르는 신부가 머리에 쓰는 '족두리'를 닮아서 족두리풀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 꽃도 제 짝이 찾아올까요?

속담에 '깊신도 제짝이 있다'라고 하지요. 풀줄기에 불과한 깊이로 만들어서, 쉽게 닳아 못쓰게 되는 깊신처럼 보잘것없는 물건도, 왼쪽 신과 오른쪽 신을 함께 만들어 제 짝이 있듯이, 족두리풀꽃은 버섯이 썩는 듯한 향기로 벌과 나비 대신 버섯파리류 곤충들을 부릅니다. 이 버섯파리는 족두리풀을 날아다니며 씨앗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좋은 짝이 되었습니다.



# # 23

탐방객의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속리산국립공원의 숲은 이렇듯 오묘한 공생의 신비로 만들어졌습니다. 버섯파리의 도움으로 족두리풀의 씨앗이 맺히고, 이 씨앗에는 알레이오숨이라는 흰 지방산이 붙어 있어 개미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됩니다. 대신 개미는 먹이를 떼어먹고 남은 씨앗을 멀리멀리 내다 버립니다. 서로 돕는 공생을 통해 족두리풀은 우리나라의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느릿느릿한 자연의 연대에 비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소비되는 현대 사회는 우리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까요? 여러분! 속리산국립공원을 여유롭게 탐방하면서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미래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자연은 보호하고 탄소는 줄이는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개미 나는 곳에 범 난다.

: 처음에는 개미처럼 작고 대수롭지 않던 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호랑이처럼 크고 무서운 것이 된다는 말

‘개미 나는 곳에 범 난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개미처럼 작은 동물이 있는 곳이면 호랑이처럼 큰 동물도 살고 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개미처럼 작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호랑이처럼 크고 무서운 것이 된다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속담처럼 개미부터 시작해 상위 포식자까지 먹이사슬이 오롯이 잘 보전된 곳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국립공원입니다.

자연이 잘 보전된 곳의 먹이사슬을 예로 들어볼까요? 개미가 부지런히 먹이를 나르면서 집으로 향하는데 길앞잡이 유충인 개미귀신이 함정을 파놓고 개미를 잡아먹습니다. 어른이 된 길앞잡이가 이름처럼 길을 안내하듯이 가다가 금개구리에게 딱 걸려 잡아먹히고, 배부른 금개구리가 쉬려는 순간 구렁이가 잡아먹습니다. 구렁이가 소화시키기 위해 나뭇가지로 올라가는데 어디선가 날아온 매가 잡아먹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여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매를 잡아먹고, 여우는 자기보다 크고 힘센 호랑이에게 잡아먹힙니다.

이처럼 자연이 잘 보전된 곳의 생물들은 서로에게 먹고 먹히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예를 들은 동물 중 개미와 길앞잡이를 제외하고 금개구리, 구렁이, 매는 멸종위기에 있으며 여우나 호랑이는 이미 멸종된 동물입니다. 먹이사슬 단절의 주된 이유는 인간에 의한 자연훼손과 무분별한 남획·포획 및 인위적인 간섭 등인데요, 이로 인하여 지금은 속담과 다르게 개미가 있는 곳에 호랑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 24

가까운 예로 19세기에 러시아 사람들은 모피를 얻기 위해 극동지역에 서식하는 해달을 사냥했는데 그 당시 30만 마리였던 해달이 1900년대 초반에는 900마리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이 해달이 주로 먹는 것은 바다에 사는 '성게'인데 이 성게는 해조류인 미역, 다시마 등을 먹고삽니다. 해달의 수가 줄어드니까 성게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고 해조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면서 바닷속이 사막화가 되어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남을 뻔했다고 합니다.

자연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은 크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고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어디선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발 이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윤태현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 아무리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살아나갈 희망은 반드시 있다는 말

장맛비가 내린 후면 속리산국립공원은 짙푸른 숲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사이에서 장마를 상징하는 꽃인 모감주나무는 우중충한 장마의 먹구름 아래에서도 선명하고 샛노란 꽃이 나무 전체를 뒤덮듯이 피어나 지나가는 이의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게 만듭니다. 빛나는 노란 꽃이 꽃줄기에 모여 핀 모습은 마치 금빛 소나기가 나무를 적시는 것 같아서 영어 이름으로는 ‘골든 인트리’라고 불리며, 꽃의 중심부에는 선명하게 붉은색을 띠고 있어 벌들에게 꿀이 가득한 꽃이라는 것을 알려주니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인지 모릅니다.

장마철에는 꽃을 피우는 풀과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벌과 나비들에게는 참 힘든 시기이겠죠. 게다가 올해 속리산에는 봄꽃이 피는 5월에 17일 동안이나 비가 내려 벌들이 꿀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벌이라고 상상하고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비가 주룩주룩 오는 장마철을 본다면 쫄쫄 굶어야 한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나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나갈 희망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장맛비 속에서도 모감주나무만은 꿀이 풍부한 노란 꽃을 20여 일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수없이 피워냈습니다. 그러니 모든 벌들의 기쁨이자 사랑을 받는 나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모감주나무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희귀식물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꽃이 아름다워서 사람이 사는 곳에 심고 가꾸다 보니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로 인식되기 쉽지만 사실 모감주나무는 환경 변화로 인해 자생지\*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셀 수 없이 다양한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에서 모감주나무 한 종이 사라지는 것은 별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감주나무는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나무입니다. 야생화의 90%, 세계 100대 농작물 중 71%가 벌에 의해 씨앗을 맺는데, 벌들의 보릿고개인 장마철에 풍부한 꿀을 주는 모감주나무는 벌의 생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재해와 질병으로 벌들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 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모감주나무 한그루 길러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김지혜

\*자생지 : 어느 종의 생물, 식물이 자연의 그대로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번식하여 계속되는 본래의 토지를 말함



# 자식 둔 부모 근심 놓을 날이 없다.

: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걱정은 끝이 없음을 이르는 말

‘자식 둔 부모 근심 놓을 날 없다’는 속담을 아시나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걱정은 끝이 없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자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햇볕에 빛나는 나뭇잎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숲에서 시원하고 향기로운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모시나비의 모습에 근심이라니 참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모시나비는 알과 애벌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다른 곤충 때문에 근심이 많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무서운 독초인 현호색에 알을 낳고 애벌레 때부터 독초를 먹고 자라서 다른 곤충, 새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호색을 먹고 자라난 모시나비 애벌레는 자신을 보호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공격받으면 냄새가 나는 뿔인 후각을 내밀어서 역한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멋모르는 새와 사마귀, 개구리 등이 애벌레를 잡아먹으려다가 후각에서 나는 역한 냄새와 독에 놀라 도망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나비로 성장하는 숫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니 자식을 둔 부모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우리의 숲에서 나비와 나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나비와 먹이지 않으려는 식물의 싸움에서 나비는 한두 종류의 풀만 편식하는 방법을 통해 살아남았는데, 현호색같은 잡초가 살 땅이 점점 줄어들면서 나비와 나방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지구는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식 둔 부모 근심 농을 날 없다.'라고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는 우리가 누렸던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우리 모두 자연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모습을 그대로 미래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김지혜



# 모기보고 칼 뽑는다.

작은 모기를 잡기 위해 큰 칼을 뽑는 것처럼 사소한 일에 크게 반응한다는 말

모기는 지구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곤충 중의 하나로 대부분의 암컷 모기가 산란기에 알의 생육\*을 위해 온혈동물의 피를 빨아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이 과정에서 알레르기 반응인 간지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전염병을 매개\*\*하여 매년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기는 현재 또 다른 호칭을 얻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망가뜨린 환경의 상징'인데요. 여름 곤충이었던 모기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1년 내내 계속 출몰하게 되었고, 인간의 생활 환경이 확대되면서 남극과 같이 원래 존재할 수 없었던 지역까지 출몰하게 되었으니 과연 인간이 환경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기온이 1℃씩 올라갈 때마다 전염병은 4.7%씩 늘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모기는 높은 온도에서 대규모 증식에 유리하다고 하니 바이러스 매개체가 증가하게 되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인 말라리아, 그 매개충인 얼룩날개모기의 경우 알이 부화하여 성충이 되기까지 20℃의 기온에서는 3주가 걸리지만 31℃에서는 3배가 줄은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생육 : 낳아서 기를

\*\*매개 :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 줌

# # 27

현재 한반도의 기온 상승폭은 지구 전체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9년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총배출량이 9위, 1인당 배출량은 18위로 세계 평균의 2.5배가 된다고 하니 어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파괴한 환경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피해는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우리 주변에서 모기를 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고, 이로 인한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모기가 일년내내 볼 수 있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모기를 향해 칼을 뽑을 때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온을 줄이고 자연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사소한 일도 크게 반응해서 지구를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추인식



# 빛 좋은 개살구

: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띠고 있지만, 맛은 없는 개살구라는 뜻으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무더운 더위가 지나고 어느새 시원하고도 차가운 바람이 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숲속에서 그 바람을 느끼자니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했던 지난날에 대한 자연이 주는 위로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속리산을 걷다 보면 자연스레 눈이 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맘때 즈음엔 참나무 아래에서는 도토리가 보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도토리만 보면 하나씩 주워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작고 귀여워서 재미 삼아 가져가는 듯합니다. 근데 과연 도토리가 겉보기처럼 작고 귀엽기만 할까요? 그 숨은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도토리를 음식 재료로 목을 썬듯이 생물들도 살아가기 위해 도토리가 필요하겠죠? 숲을 걸으며 바닥을 유심히 바라보세요. 참나무 아래 바닥에 나뭇잎이 꽤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 보셨을 것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 비바람에 의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셨을 텐데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도토리거위벌레라는 벌레의 작품입니다. 자세히 보면 잎이 달린 가지에 도토리가 한두 개씩 붙어서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도토리거위벌레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도토리거위벌레는 주둥이가 길쭉한 것이 마치 거위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도토리거위벌레는 5월 하순쯤에 번데기가 되며 성충으로 우화하는 시기는 6월에서 9월 사이이고 최성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입니다. 우화한 이 성충은 나무 위에서 도토리에 주둥이를 꽂고 흡즙\*\*하며 성장하는데 성충의 산란수는 20~30여 개가 됩니다. 산란하는 방법은 주둥이로 도토리에 구멍을 뚫은 후 산란관을 꽂아 1회에 1~2개씩 알을 낳고 도토리에 알을 낳아 자기의 새끼가 안전하게 우화할 수 있도록 주둥이로 가지를 잘라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가지를 잘라 땅에 떨어질 때 잎이 프로펠러처럼 빙글빙글 돌아 추락 시 완충\*\*\*작용을 해주어 안전하게 바닥에 착지할 수 있습니다. 길바닥에 도토리를 떨구는 독특한 산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도토리거위벌레도 자기만의 생존전략을 찾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랍니다.

\*최성기 : 가장 왕성하고 한창인 때

\*\*흡즙 : 구멍을 삽입하여 즙액을 흡수하는 행동

\*\*\*완충 : 두 물체가 충돌할 때의 충격력을 완화시키는 것

도토리 안에서 부화한 유충은 그 과육을 먹으며 자라는데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를 보고 무작정 가져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도토리도 가져가고 도토리거위벌레의 유충도 가져가는 것이 되겠죠? '빛 좋은 개살구'처럼 겉으로 볼 때는 탐이 날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추운 겨울을 버티기 위해 작은 생명체가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나가실 때는 바닥에 푹 떨어져 있는 도토리를 보신다면 '도토리거위벌레구나' 하며 조용히 비밀을 간직한 채 지나쳐주세요. 작은 도토리거위벌레라는 소중한 생명이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요!

김현주





# 단풍도 떨어질 때 떨어진다.

: 단풍잎도 가을이 되어야 떨어진다는 말로, 무엇이나 때가 있다는 뜻

주변의 어른들께선 때때로 “학생인 너는 지금 열심히 공부만 할 때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 당장은 부지런히 일만 할 때야”라고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이 말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단풍도 떨어질 때 떨어진다.’라는 속담처럼 가을에 단풍잎이 떨어지듯이 나무나 식물도 각각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등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단풍나무는 왜 가을에 단풍잎을 떨어뜨리는 걸까요?

가을이 되면 나무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나뭇잎을 떨어뜨려 수분과 영양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줄임으로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때 나뭇가지와 나뭇잎 사이에는 코르크처럼 단단한 펠라\*가 만들어지는데 펠라가 만들어지면 나뭇잎은 뿌리에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소도 줄기로 이동하지 못해 잎에 남게 됩니다. 영양분을 더 만들 수 없게 된 잎에서는 엽록소가 점점 파괴되어 안토시아닌이나 크산토펜과 같은 다른 색소에 의해 노랑고 빨강계 잎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단풍이 든 잎의 펠라가 완성되면 잎은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것입니다.

\*펠라: 잎, 꽃, 과일이 줄기에서 떨어질 때 그 자리에 형성되는 분열조직 또는 유조직 세포층



## # 29

단풍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뜻하고 맑은 낮과, 기온이 7℃ 이하이고 얼음이 얼지 않는 밤이 계속된다면 밝고 진한 단풍이 듭니다. 붉은빛을 띠는 색소인 안토시아닌과 노란빛을 띠는 색소인 크산토펜은 온도 차가 클수록 화학 작용이 활발해지는 특성이 있어서 밤낮의 기온 차가 크면 더 아름답게 울긋불긋 단풍이 물든답니다. 그리고 단풍은 평지보다는 산, 강수량이 많은 곳보다는 적은 곳, 음지보다는 양지에서 더욱 예쁘게 물듭니다. 산 전체 면적의 20%가량이 물들었을 때를 단풍 시작일로 본다면 80% 이상이 물들었을 때를 절정에 달았다고 봅니다.

그 해에 날씨, 기온에 따라 단풍이 드는 시기는 다 다르나 대체적으로 속리산은 10월 하순을 시작으로 11월 둘째 주까지를(가)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산의 나뭇잎이 붉게 물들어 있는 가을 산의 단풍을 표현한 만산홍엽(滿山紅葉), 벌써부터 색색의 아름다운 속리산의 가을이 기대됩니다.

김용현



#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뻔다.

: 새로 들어온 사람이 본래 터를 잡고 있었던 사람을 내쫓거나 해를 입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동물과 식물, 사람과 자연 등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 얽히고설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해를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양한 생명체들은 빠른 변화에 적응해가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들레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민들레는 크게는 우리민들레, 서양민들레라고 구분을 지어 말합니다. ‘우리민들레’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토종민들레로 ‘민들레’, 흰 꽃이 피는 ‘흰민들레’, ‘산민들레’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고 있는 민들레는 사실 서양민들레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냥 밟히는 정도로는 절대 죽지 않는 강한 생명력으로 유명한 민들레는 어떤 핍박과 억압에도 꺾기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백성과 같다고 하여 민초\*라고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이 심해진 지금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되었는데요, 토종민들레는 아황산가스, 산성비 등 공해에 약하지만, 서양민들레는 공해에 찌든 도심에서도 개체 수가 늘어갈 정도로 공해에 강합니다. 또한 토종민들레는 4월에서 5월 한차례 꽃을 피운 뒤 6월을 전후로 씨앗을 맺는 데 비해 서양민들레는 봄에서 초겨울까지 여러 차례 꽃을 피우며 씨앗을 급속히 퍼뜨리고 발아율\*\* 또한 높아서 서식환경이 변했음에도 빠르게 적응하여 귀화식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민초 : ‘백성’을 질긴 생명력을 가진 잡초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발아율 : 파종된 종자수에 대한 발아종자수의 비율

\*\*\*귀화식물 :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토착화된 식물



## # 30

토종민들레는 꽃받침이 꽃을 떠받들 듯이 바짝 붙어 있고 종자의 수가 적으며 무거운 반면 서양민들레는 꽃받침이 뒤로 젖혀져 있고 종자의 수가 많으며 가볍기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가는 차이가 있으니 길에서 민들레를 발견했을 때 토종민들레를 찾아보는 즐거움도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뻘다’라는 속담처럼 서양민들레가 토종민들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가는 환경에 서양민들레가 빠르게 적응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사람들의 악영향 때문이라는 점에서 토종민들레도 잘 자생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으로 돌려주는 것도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토종민들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천순



# 거미는 작아도 줄만 잘 친다.

: 모양은 비록 작아도 제 할 일은 다 한다는 말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는 곳이면 어디든 거미줄이 잔뜩 보입니다. 거미는 작아도 줄만 잘 친다는 말이 맞는 모양입니다. 작아도 제 몫의 일은 잘 해낸다는 이 속담처럼, 속리산 안에 자리 잡은 법주사 사찰 안에도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제 몫의 일을 잘 해내고 있는 문화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3대 불전 중 하나인 법주사 대웅보전 앞에 있는 법주사 사천왕석등(보물 제15 호)은 법주사 쌍사자석등(국보 제5 호)과는 다르게 전형적인 석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8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통일신라의 불교 전성기에 만들어진 정석의 석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등이란 화사석에 불을 붙여 놓음으로써 부처님의 말씀이 널리, 멀리 퍼져나가라는 의미로 설치하는 석조물입니다. 법주사 사천왕석등은 주인 전각인 대웅보전에 비해서는 웅장함도, 화려함도 갖추지 못한 흔한 모습의 석등이지만 통일신라 시기부터 법주사 안에 있었으며, 조선 후기 대웅보전이 건립되면서 그 앞을 지키며 자신의 몫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법주사 사천왕석등의 사천왕은 불교 세계의 중심이라는 수미산 중턱에 위치한 사왕천을 지키고 있는 네 명의 신을 말합니다. 이 사천왕은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고, 불법을 지키며 불교를 믿는 사람들 또한 지키는 호법신\*입니다. 이렇게 불법과 불자를 지키는 사천왕을 화사석에 조각해 두었기 때문에 이 석등을 법주사 사천왕석등이라고 부릅니다.

\*호법신 : 불교를 수호하는 신을 총칭하는 불교 용어



# # 31

웅장한 대웅보전과 양옆의 커다란 염주나무 사이에 위치해서 더욱 소박해 보이는 법주사 쌍사자석등은 약사전이나 팔상전 앞에 위치한 석등들과 같이 어느 절에서나 볼 수 있는 석등의 모습과 비슷해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천왕을 닮은 모습으로 조각해놓은 이 석등에게는 사천왕석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거미는 작아도 줄만 잘 친다는 말처럼, 법주사 사천왕석등 또한 작지만 대웅보전을 든든하게 지키며 제 몫의 할 일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크게 눈에 띄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할 몫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다른 문화재들보다 법주사 안에 있는, 쉽게 지나쳤던 문화재들을 눈여겨보며 마음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지아람



#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

: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말

속담 중에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낙숫물'이란 빗물이 흘러내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을 말하고, '댓돌'은 집이나 전각의 기단\*을 구성하는 돌을 댓돌이라고 부릅니다. 풀이하면 빗물이 지붕 처마를 따라 흘러내린 뒤 단단한 댓돌에 떨어져 구멍을 낸 것을 표현하는 속담인데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속리산 법주사는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오랜 역사와 많은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많은 문화재 중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라는 속담과 관련한 석조물이 있는데 바로 국보 문화재 '쌍사자석등'입니다.

석등은 주로 사찰 경내나 능묘 등에 불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 두었는데요,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석등을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많이 건립되었습니다. 8세기 초 통일신라시대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쌍사자석등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다른 석등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화사석을 받치는 간주석\*\*이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대웅보전 앞 사천왕석등과는 다르게 기존의 팔각 모양을 벗어나 두 마리 사자가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쌍사자석등은 단조로운 팔각의 간주석에서 벗어나 사자를 배치함으로써 생동감과 역동성을 주고 있는데, 쌍사자석등이 지닌 가장 큰 의미는 불교를 수용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같은 양식의 조형물을 찾아볼 수 없다는 우리만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과 전쟁의 상처로 사자머리의 깃 일부와 꼬리가 사라졌으나, 이 석등이 대단한 이유는 사자 발밑 하대석부터 화사석을 떠받치는 상대석까지 모두 하나의 돌(一石)을 조각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돌을 조각해서 만드는데 뭐 어려울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시 큰 돌을 조각해서 사자의 눈 하나를 표현하려면 석공이 수천에서 수만 번 이상의 망치질을 해야만 한다고 하니, 전체를 완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망치질을 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기단 : 건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면에 흙이나 돌을 쌓고 다져서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곳


\*\*간주석 : 석등의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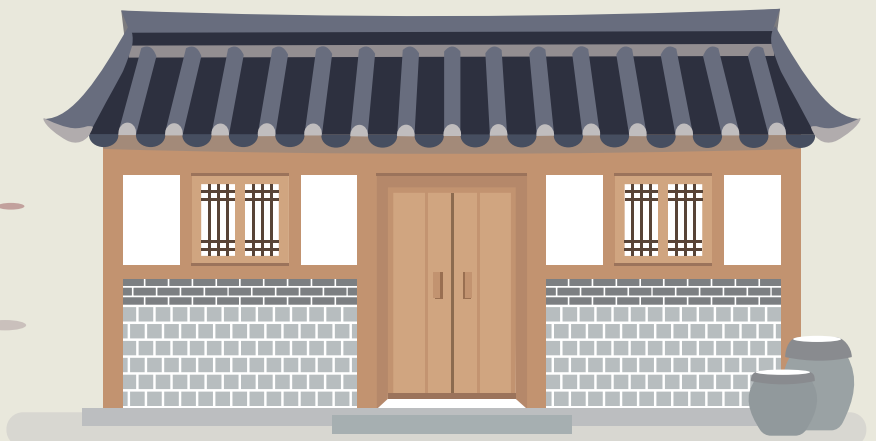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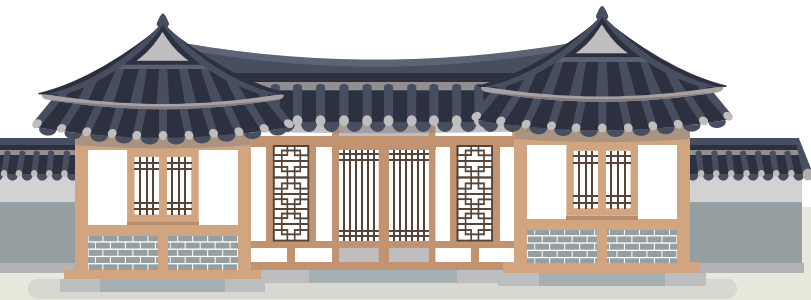
# # 32

아마도, 당시에 내로라하는 석공들이 '낙숫물이 뿔뿔을 뚫듯' 매우 오랜 시간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을 것이라 감히 짐작만 할 따름입니다. 석공 한 분, 한 분이 모여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해 빚어낸 쌍사자석등은,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하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훌륭한 결실을 볼 수 있다는 깨달음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려보고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윤태현





# 속담으로 배우는 국립공원 속 탄소중립

---

발행일 | 2021. 11.

발행인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윤지호

기획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황의수, 김명옥

집필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연환경해설사

이천순, 김용현, 윤주영, 추인식, 김지혜, 강현지, 윤태현, 지아람, 김현주

편집·교정 | 김명옥, 장유진, 박진우

발행처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28910)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84

홈페이지 | <http://songni.knps.or.kr/>

가격 | 비매품

---

본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